

JAL



부당 해고 부터 13 년! JAL 는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!

12 월 31 일에 165 명 해고를 강행했다

JAL 는 2010 년 1 월에 회사 방만 경영 끝에 경영 파탄이 났습니다. 그리고 그해 12 월 31 일에 조종사 81 명과 객실 승무원 84 명을 정리 해고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. JAL 의 파탄과 재건에는 일본 정부가 크게 관여해왔습니다.

해고 기준은 기장 55 살 이상, 부조종사 48 살 이상, 객실 승무원 53 살 이상 그리고 병근하고 있던 승무원이어서니다.

항공기 운행에는 경험이 중요하며 베테랑부터 해고하는 항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. 안전 경시 그 자체입니다. JAL 는 지금까지 항공기 사고로 744 명의 희생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.

필요 없는 해고! 진정한 목적은 “노동조합 무너뜨림”

해고 시점에서 1586 억 엔 이익을 올려 인원 삭감 목표도 대폭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. 재판에서 다투었습니다만 해고 시점에서의 필요 인원수와 실제 삭감 인원수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. 법원도 회사에 그 숫자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

그리고 국토교통성(国土交通省)도 JAL 가 인원수를 밝히지 않은 채 해고를 한 것을 묵인했습니다. 이 해고의 의도가 경영 파탄을 이용한 “노동조합 무너뜨림” 인 것이 밝혀졌습니다.

해고 과정에서 행해진 부당 노동 행위가 대법원(最高裁)에서 단죄



노동조합이 해고를 회피하지 위해서 회사와 협상하는 동안에 관재인(管財人)이 노동조합에 “파업권을 확립하면 3500 억 엔을 출자하지 않는다. 그러면 회사는 망하게 된다”고 거짓말과 위협으로 노동조합 파업권 투표에 개입했습니다. 3500 억 엔이 출자되지 않으면 이차 파탄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행위는 2016 년에 대법원에서 “헌법 위반”으로 엄격하게 단죄되었습니다.



International Labour
Organization

국제 노동 기준을 무시! 신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해고자를 한 명도 되돌리지 않았다”

JAL 는 재건시에 조종사 477 명과 객실 승무원 6325 명을 채용했습니다만 해고한 승무원들을 한 명도 직장으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. 이 것은 정리 해고자의 우선 고용을 정한 ILO166 호 권고=국제 노동 기준을 무시하고 “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다”고 정한 “JAL 그룹 인권 방침”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.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.

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요구하고

해고 쟁의를 13 년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(인도적 문제)이기도 합니다.

우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 JAL 가 안전 최우선의 회사가 되도록 하루라도 빠른 쟁의의 해결을 요구합니다.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

JAL 해고된 근로자 노동조합(JHU)
メール: info@jhu-wing.main.jp
URL: <https://jhu-wing.main.jp/>